

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리플릿: 역사

시마바라반도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시마바라반도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마바라반도는 아주 오랫동안 권력이 집중되는 장소와는 거리가 먼 벽지였습니다. 하지만 8세기가 되자 온젠 화산군은 불교 숭배와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16세기 후반 나가사키는 국제적인 항만도시가 되었고, 시마바라는 기독교 개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600년대 기독교가 금지되면서 반도는 기독교인과 막부의 처절한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1792년에는 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약 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시마바라는 동아시아에 사는 서양인들의 관광 여행지였습니다.

시마바라 · 아마쿠사 잇키란?

기독교는 1614년에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니시큐슈에는 아직 많은 일본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도쿠가와 막부는 시마바라의 기리시탄 영주를 해임하고, 지역 기독교인을 박해하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영주로 대체했습니다. 1637년 겨울, 마침내 시마바라와 아마쿠사의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영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3만 7천 명의 반란군이 하라 성을 점거했고, 1638년 4월 12만 5천 명 이상을 이끄는 막부군이 하라 성을 제압할 때까지 하라 성을 계속 점거했습니다. 성이 탈환된 후 기독교 농민 약 3만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시마바라 · 아마쿠사 잇키는 에도시대(1603년-1867년) 마지막 대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부는 외국인, 특히 포르투갈인이 기독교를 이용해 일본을 약화시켜서 식민지화를 용이하게 하려 한다고 비난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이후 230년간 세계로부터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반도 역사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는 무엇인가요?

1792년 5월 21일, 수개월에 걸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반도 일대에서 계속된 후 마유야마의 일부가 붕괴되어 시마바라 마을을 파괴하는 암설류가 발생했습니다. 암설류는 해안에 이르자 아리아케카이를 건너 현재의 구마모토현에 해당하는 히고의 마을까지 덮치는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류가 시마바라를 덮쳐 결국 시마바라에서 1만 명, 히고에서 5천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암설류와 그 결과로 생긴 쓰나미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일련의 재해는 불과 3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시마하라 대변 히고에 민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재해 직후에 쓰여진 수많은 문서와 스케치 등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이 끔찍한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